

임신하면 사직 vs 출산하면 승진... 어느 나라서 아이 낳고 싶나요

<한국>

<프랑스>

아이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1 프롤로그

결혼 10년차 정상필(43)·마리옹(33) 부부는 다문화가정이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 셋이 있다. 루미(여·8), 이안(6), 이작(3) 삼남매다. 결혼 직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1년 전쯤 다시 파리로 떠났다. 이 부부가 한국을 떠난 이유는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출산·육아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많다.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주거수당, 가족보충수당, 가족지원수당, 편부모수당, 육아휴직수당 등등. 과히 '수당천국'이다. 하지만 정씨 부부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수당 때문이 아니라 행복지수 때문이라고 했다. 부인 마리옹의 여성으로서의 삶과 아이들의 행복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씨가 느낀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육구에 대해 정부와 사회의 노력 여부'라고 했다.

프랑스는 결혼·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출대가 없다고 했다. 출산이 경력단절이나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반대 경우도 있다. 세 쌍둥이를 낳고 돌아온 30대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자 승진시켜 중책을 맡긴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레알'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국은 어떤가. 임신하면 권고사직 당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임신 5개월,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와 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니다. 해고통보를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며 말을 바꿨어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이다.

당신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는가?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도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단면이 그려지고 있다. 극 중 서지태-이수아는 '연애는 예스, 결혼·출산은 노'라고 선언한 'N포 세대' 대표 비혼 커플이다. 수아의 청혼에 지대는 "결혼은 사치다. 결혼파원 안해, 월세 사는 집 장남이라 희망이 없어서 결혼 안해. 내 자식한테 네 같은 가난 대물림하기 싫어서 결혼 안해. 니가 원하는 아파트에 살 수 없어서 결혼 안해"라고 절규한다.

알림

'출생 축하방'...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 보내 주세요

광주일보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아이가 꿈이다'에서는 2018년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idream@kwangju.co.kr

서울 살던 아이 셋 젊은 부부

육아·교육 위해 파리로 떠나

국가가 아이 키워주는 시스템

저출산 문제 해결 출발점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번번한 수입에, 자녀 양육 부담은 커져만 가고... 미래가 우울한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포기는 강요된 선택인 것이다.

최근 아이 셋을 둔 아버지 2명과 대화했다. 이 구동성으로 "아이 셋 기르기가 정말 힘들다"고 했다. 부모 중 한 명은 자신의 일을 접고 아이들에게 '올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탈어질 수 있어서란다. 이들은 육아·교육 문제 해결 없이 출산 대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버지 A씨는 "한 가정만으로는 아이 셋을 기를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전담의 위기다.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를 '육아·교육 특구'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실험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금 황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 B씨는 출산유공자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인구 위기에서 출산만큼 국가를 위한 공로가 어디있겠느냐는 것이다. B씨는 "아이 다섯을 낳으면 부모 또는 자녀 중 한 명을 출산 유공자로 대우해 공무원 등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을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 우선과제로 36.8%가 '육아 부담 경감'을 선택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문화'(29.8%), '주거 지원 강화'(16.4%) 등을 꼽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거나,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 한다.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광주일보의 연중기획으로 I♥DREAM 프로젝트 '아이가 꿈이다'를 통해 인구절벽에 부딪힌 현실에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꿈은 미래이고 희망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은 아이다.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 신생아실에는 우리의 꿈들이 자라고 있다. 2018년 광주일보의 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아이가 꿈이다'를 통해 '아이들이 살아갈 행복한 세상, 아이 낳기 좋은 광주·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0년대 '둘 만 잘 기르자' 80년대 '하나면 충분하다' 90년대 '아이가 희망입니다'

표어로 본 출산정책 변천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2018년을 시작하는 지금이라도 어울릴 법한 이 표어는 우리나라의 '산아(産兒) 제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던 1970년대 유행했던 '구호'다.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 많아 고출산사회가 되다보니 나라에서 인구 정책을 강력하게 간섭하던 때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반 출산을 억제하고자 한 가족계획정책부터 시작했다.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하던 40년대 이후 인구가 늘자 이를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제한하기 시작했다. 60년대 후반 셋을 낳으려던 출산정책은 70년대 들어 돌로 줄었고 급기야 80년대에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표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1961), '뉘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3)라는 '웃픈' 표어가 나돌았고 70년대 이전까지는 '3·3·35 운동'(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을 벌였다.



70년대 들어 '남녀는 평등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임신 안 하는 해'(1974),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1975)가 정해졌으며, 80년대 들어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 낳기는 이제 옛말 일등국민 하나 낳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구호가 나돌면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들어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낳지 말자'에서 '제발 좀 낳아라'로 바뀐 것이다.

'아이가 희망입니다'(2006~2008), '가갸호호 아이 돌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2008~2010), '허전한 한자녀, 흐뭇한 두자녀, 든든한 세자녀'(2013)... 언제 어떻게 출산정책이 바뀔 지 알수 없지만 당분간은 '출산 환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비혼 시대. 출산을 감소는 이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국민 숙제'가 아닐런지.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함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

투명한 전력정보 공개

친환경 전력상품 개발

행복한 지역나눔 실천

그 중심에 항상 **전력거래소**가 함께합니다.

